2022
설날 가정예배

찬송가 430장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33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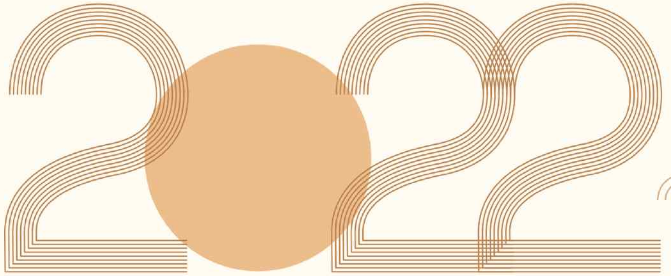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 창세기 28:16~19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
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
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
름은 루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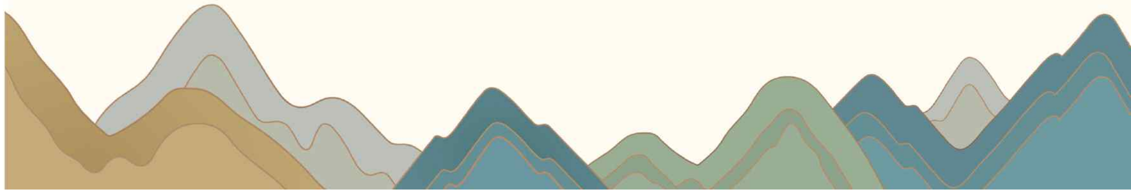
2022년 2월 1일(화)

HAPPY NEW YEAR



설날 가정예배

한마음교회



예배순서

인 도 자 맡 은 이

인사 및 예식사 **맡 은 이**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부모님과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가 ……………………… 430장 ……………………… **다 같 이**

공동기도문 …………………………………………………………………… **맡 은 이**

(가족 중 한 분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염려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말 씀 …………………… 창28:16~19 …………………… **맡 은 이**

설 교 …… “ 하늘을 바라 봅시다. ” …… **맡 은 이**

(가족 중 한 분이 설교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찬 송 가 ……………………… 338장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덕담나누기 ……………………………………………………………………………

새해를 맞으며 가족 간에 덕담을 함께 나눕니다.

“ 하늘을 바라봅시다. ”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화가 되어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야곱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과 자신을 지켜 줄 안식처가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벧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곳이 절망의 땅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 여호와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이 너무 귀해서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벧엘과 같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승리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